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신학대학에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문이 없으니 들어오고 나갈 것 없어

### 15면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하, 이 수많은 여인에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너는 시주를 했으니 부처님께서 좋은 양반의 집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몸을 벗게 했구나" 하고 얼마나 고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그런 생각이 나실까요?

김대성이 사흘만에 죽어서는 멀지 않은 곳 정승집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으니 항상 재산날이면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좋은 집에 태어나기를 염원했어요. 그리고 김대성은 자라면서 꿈에서 항상 1년에 한번씩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노파가 밥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를 수 해가 지났던 말입니다.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스럽거든요. 하도 여러번 다니니까 길도 훤히 알고, 그래서 한번은 바로 그날 가보니까 또 그렇게 노파가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늙어 꼬부라져서 형편없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생의 어머니를 봉양할 공부를 생각했고, 지금 현생의 부모를 모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절을 짓고 그랬던 말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애기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부모를 다 모시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도 세세생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 들로 보지 않아야 벗어나

그러듯이 우리가 부모를 위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지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온 것을 생각하면 전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그렇다면 모두가들로 보지 말아야죠.들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분들은 바로 내 모습 내 마음으로 인해서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공용하면서 공부를 해서 같이, 내 몸속에 중생들도 다 같이 벗어나는 길에 수만 개가 터지죠. 지금 은하계의 큰 별이 별성을 낳는 문제와 똑같죠. 은하계의 별성이 있으면 모습이 없는 그것을 모두 한데 합쳐서 그 모습을 입히고 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 기르는 데도 어머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듯 그렇게 길러서 수만 개의 별성을 내놓죠.

그저는 어디로 갔던지 하려면 그런 게 우리하고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가깝게 여러분한테도 별성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칠성부에 들어가니까 훗날을 요망한 것 이만한 것, 큰 것 작은 것 해서 죽 썩 놓았더라고요. 썩어 있는데 불을 보니까 훗날이 아니라 별성이더라고요. 작은 것 큰 것, 긴 것 짧은 것,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에 따라서, 수명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별성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훗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월초파일이면 등을 켜는데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실 때 모든 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별성이 그냥 그대로 제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훗날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거는 거죠. 부처님과 중생들 미생물 모두 이 세상 만사를 다 위해서 우리가 켜는 겁니다. 그렇게 켜고 근본 자체는 바로 여러분이죠.

질문자1(남): 먼저 큰스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인연과 기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김경현입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생로병사가 본래 실체가 아님을 알

아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 알고 싶은 생각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허허허.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구경지는 무엇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스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과거에도 오늘이 있었고 미래에도 오늘이 있을 거고 현재에도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삼 현재삼 미래삼 이것이 통일하게 한데 합치니까 구경지입니다. 이것을 묻지 않는 문으로 통과가 돼야 그 도리를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현재도 공해서 없다는 얘깁니다. 공해서 없기 때문에 모든 조상님네들을 다 돌로 만들고 거기다가 일입하면 모두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법체 건강하십시오.

스님: 난 편리하고 간편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간편하게 어지럽지 않게 괴롭지 않게 그냥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자2(남): 저는 포항지원에서 온 백두한입니다. 큰스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 법당에서 관을 하다가 살아가는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껴져서 '어떤 인연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살아가는지 주인공 너만은 알 수 있잖아'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순간 아!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순간 과거를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어찌 그 몇 가지만 겪어왔는지? 큰스님께서 늘 삼라만상 일체 생명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겪지 않는 모습이었고 내가 겪어보지 않는 마음이 없다. '고'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이요 지비라고 하신 큰스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흐르는 눈물 속에 주인공에 관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인공 자리에 놓고 내만이 할 수 있다고 끝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일이 닥쳐오는 것도 수억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일이나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또한 공했으니 또 살아지겠구나 하고 그냥 생활에 충실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님: 지금 나의 주인공이 바로 자불이나 자불한테 다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밑바닥에 앙금을 남겼기 때문에, 100%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과거에 살다가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현재에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 때에 그 빨간 줄 처진 것을 빼와야 됩니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에 다 맡겨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승과 이승이 멀다 가깝다도 없이 혼란이 안되고 해결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고 조금 이르고 아주 빠르고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저 될 수 있으면은 잘 실천해서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게 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더디고 그러니까 괴롭죠? 괴롭다는 거, 그런 것도 다 믿어서 그냥 다 버릴 수 있어야 믿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치도 않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것도 아니니까요.

질문자3(남): 큰스님, 항상 늘 좋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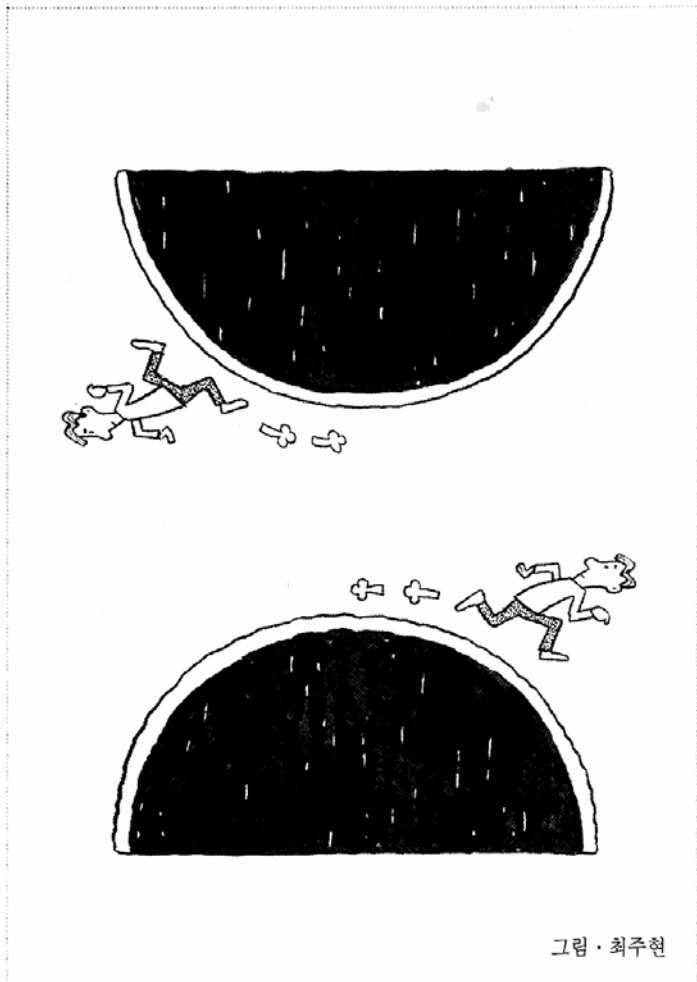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조상 1만명이 들어와도 나와 하나 자불한테 다 맡길때 지은 업 없어져

리를 만들어 법문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지원 청운회 노병수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도를 하여 견성 성불하신 분은 무의 세계를 아시겠지요. 또 범부들 중에도 공부하여 가면서 전생을 받든가 귀신과 조상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습 또는 타인의 생각이나 습관을 보는 것을 귀신을 받든가 또는 조상님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또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 될 수 있으면 웃고 살아가

스님: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개인의 생각과 차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도의 길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도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도가 아니고,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도 도가 아니고, 모두가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로 말이 없더라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해준다면 목마른 사람 물을 주고 나도 목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도의 길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둘이 아니게 거기가 놓아라. 둘 아니게 진짜로 믿고 놓을 수만 있다면 조상님네들도 다 환한단다.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 가면서 고비고비 넘는다고 그러죠. 사실 고비고비 넘는다는 것도 넘을 것이 없는 데도 넘는다고 하죠. 넘을 것도 없는 고

비를 넘을 때마다 그거를 잘 알게 되죠. 공부를 하다보면 '아, 이 지위에 들었구나. 여기 이 지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부분만 알고선 깨우쳤다고 아단들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이게 통틀어서 정말이지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런 지위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마 서천국에 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도하고 벗어났는 공부입니다.

질문자4(남): 이렇게 큰스님을 빌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김태완이란 사람입니다. 지금 목수 일하는 틈틈이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저는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마음 지리 하나 놓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큰스님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미국 클락슨 대학에 로렌스 슐만이라는 물리학 교수는 최근 과학잡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시간이 앞으로 가는 지역과 거꾸로 가는 지역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주가 대폭발로 팽창을 하면서 앞으로 흐르던 시간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거꾸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식으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지 수축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는 '내가 우주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차 안에서 내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뛰어도 기차가 가는 속도로 갈 뿐이지 내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지금 2000년도에서 1999년도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2001년도로 가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라면, 다시 말해 시간은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참,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큰스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셨던 선지식께서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래라는 게 과거가 때문에 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스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이 과거를 회상하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의 흐름에는 알과 뛰가 따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애당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의 밝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 보고 말하고 아는게 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 물 줄수 있어야 참된 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 해봅시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타고 갔는데 거기서는 중점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댁에는 중점으로 내렸지만은 거기서 타는 사람이 사발접이 되죠. 댁에서 타고 올 때 또 사발접에서 타죠. 그래서 사발접도 없고 중점도 없다 이게 되고, 이것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것도 없다. 그건 별입니다. 이우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이게 동글어서 동글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과 평지, 허공이 것이 전부 틀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 잘하죠. 우리 사는 지구가 버스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에서 이거 내 거니 내 거니 하는 겁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하면 안되니까 이 마음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느니 바로 가느니 그런 이유에 불과해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진리가 작아도 그렇고 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물질세계입니다.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고 물질세계만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정신세계에서 에너지가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스럽게 살라.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명심해서 듣고 너희가 활활 벗고 자유스럽게 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알게끔 다 있는데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여지껏 그냥 몸뚱이 속에서 사는 거와 같이 살았습니다.

목수 일 한다고 그랬나요? 그 일 하시면서 공부하는데 어떠세요? 목수 일 하

는 거기에 우주와 섭리가 있을 텐데요. 어디든지 없는 게 없어요. 발 한 짝 떼어 놓고 가는 데도 그게 보통 발 한 짝 떼어 놓고 가는 게 아니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과학 아닌 게 없지만 과학이라는 그거보다도 더, 너무나 섭리가 많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 안인 까닭에 모두가 거꾸로도 없고 바로도 없다 이런 거죠.

사람한테도 혈관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법망이 있죠. 인간한테도 법망이 있어요. 법망이라고 해야 맞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생명들이 수없이 한편으로 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없이, 우리들 몸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돌이 아니게 죽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 것 없이 순서대로 개천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주 정확한, 정말 인간을 만들어서, 정말 잘 설계금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에너지는 정신에서 나와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스님은 모든 걸 다 아시리라.' 그렇게 믿고 계시죠? 보려면 다 볼 수도 있고 알려면 다 알 수도 있지만 그 귀찮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알려고 한다면 뭐 삼천년 전이든 후든 몽땅 알게 되죠. 그게 잘못됐다 해서 또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잘 하나 '아이구,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잘 했으면 빨리 훨훨 벗어날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과학시대고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데 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세요. 인

간의 몸통이 속은 보이지 않는 암흑이지만, 불꽃 아는 사람이 불 때면 틈들이어는 곳에 어느 것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죠. 하여튼 열심히 하라 하고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지 제 삼자를 무시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또 한가지는요 사람이 살면서요, 한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 그칠 수 있으면 웃고 사세요. 웃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요, 내 힘이 있으니까 웃는 겁니다. 힘을 믿고 웃는 겁니다. 힘을 믿고 웃는 것은 믿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지 믿지 못하면 웃음이 안 나오죠. 이걸 어찌나 그러고 근심을 하느라고 얼굴이 찌푸려지죠. 찌푸려지는 얼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믿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찌푸려집니다. 절대로 찌푸려지지 마시고 당장 저녁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찌푸려지 않는다면 저녁거리가 금방 옵니다. 허허.

참 이런 공부를 그칠 때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앞서 간 사람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밟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면서 보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안 봐도 보고 있고 항상, 하는 거를 다 알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죠. '뭐 저 스님은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도 없고 뭐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 내가, 일체제를 아닌 일체제 불이 바로 그렇게 행이 아닌 행을 하시니까요. 그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걷고 손슨은 손으로 일체 만물을 다 굴릴 수 있게끔 하십시오.

\*위 법문은 2000년 4월 2일 법회법회에서 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짜로 인위를 빚듯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45신 288쪽 값 6,000원 **에사자문**